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동의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윤 경 자

Dept. of Home Management, Dong-eui Univ.
Assistant Prof. : Gyung Ja Yoon

〈목 차〉

- | | |
|--------------|-------------|
| I. 서론 및 문제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Using 220 married coupl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factors related to gender role attitud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while couples of egalitarian husbands and traditional wives scored the highest marital satisfaction, couples of traditional husbands and egalitarian wives were least satisfied in their marriage. Egalitarian marriages in which both husband and wife were egalitarian and traditional marriages in which both husband and wife were traditional located in the middle. The matches of gender role attitudes than the congruency in gender role attitudes between husband and wife more influenced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Wives, in general, tended to be more egalitarian than husbands.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 duration of marriage,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d significant effects on gender role attitudes of both husbands and wives. The results imply the changing norm of couples' gender role orientation today.

* 이 연구는 1996학년도 동의대학교 자체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및 문제제기

기능주의적 가족사회학적 관점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각각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로 특징짓는데(Parsons and Bales, 1955), 이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성에 따라 고유한 과업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남성은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가족을 대표하며 반면 여성은 가족 내에서 가사를 담당하고 자녀를 보살피는 정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취업주부들은 온종일 직장에 헌신할 때조차도 가사일을 도맡아 하거나 여성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관리라는 전통적 가치로 인하여 이중으로 스트레스와 일의 과중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1981년의 40.5%에서 1995년의 47.6%로 증가하면서(통계청, 1996) 기혼여성의 성역할의식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특히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으로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가치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것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의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남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성역할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성역할의식과 사회의 가치규범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전통적 태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혼관계에서 여성의 역할과중과 역할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Gordon, 1990; 유영주, 1991; 임정빈, 정혜정, 1986).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 관계는 배우자들이 가사일과 육아, 직장에 헌신하는 정도와 그로부터 얻는 보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역할에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관계의 평등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즉, 어떤 취업부인이 실제로는 가사일과 육아의 대부분의 혼자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이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기혼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고유업무라고 인정한다면 실제로는 부부간 일의 부담이 평등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 부인은 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다

는 뜻이다. 이와 같이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부부들의 결혼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부부들의 성역할태도와 관련변인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와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 관계에 관한 최근 연구는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급격히 늘어난 기혼여성들의 취업률과 달라지고 있는 성역할의식을 고려할 때 성역할태도가 오늘날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역할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부인을 중심으로 직업 유무 및 종류, 소득차이, 교육수준, 성별 등에 따른 성역할태도를 살펴봐왔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주부가 평등적 주부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나(박태은, 1983; 임정빈, 정혜정, 1986),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태도의 성향은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관련이 없거나(Allen, 1988), 또는 맞벌이 부부들은 결혼관계에서 평등적 성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때 결혼만족도가 높거나(Robinson, 1995), 그리고 평등적 성역할을 할 때 결혼에 만족하는 등(Durkac, 1990)으로 나타나 이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 관계에 관하여 이처럼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등적 성역할의식을 지닌 부부관계가 바람직한 결혼의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한남제, 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의 일치여부와 부부의 결혼만족도간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서로 일치할 때 역할갈등이 적어질 것이므로 결혼만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Lewis and Spanier, 1979, pp. 283-284). 이것은 부부간에 어떤 특정한 유형의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것이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일치여부보다는 결혼만족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최규련(1984)의 연구는 부부간 성역할태도가 일치하는

집단은 성역할태도가 상이한 집단들에 비해 중간 정도의 결혼만족도를 나타냄으로써 이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반면 성역할태도가 일치하는 부부들이 불일치하는 부부들보다 결혼에 더 만족한다는 결과도 있다(Cooper, Chassin, and Zeiss, 1985). 부부들의 성역할태도의 일치여부가 특정 유형의 성역할태도보다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부부 중 한쪽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규명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등부부와 전통적 부부 모두 높은 결혼만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 관계에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수들은 이미 중범위이론으로 설정될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한 결혼, 결혼 및 가족치료,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가치관으로서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결과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인들의 자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와는 다른 가족해체의 양상과 남편과 부인의 전통적 역할이 도전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 유형 및 일치여부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예측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성역할태도는 성별에 따라 엄격한 역할구분을 지지하면 전통적(traditional), 그리고 특정 성별에 기인되지 않은 융통적 성역할을 지지하고 성역할과 가치관에서 성차별을 나타내지 않는 평등적(egalitarian)

태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성역할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 교육, 직업, 성별, 취업여부, 소득 등의 요인들이 성역할태도와 관련되어 있으나 이 요인들과 성역할태도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성별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차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근대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서동인, 1985; 이성희, 김태현, 1989; 이형실, 옥선화, 1985; 최규련, 1984; Brogan and Kutner, 1976; Citron-Bilovsky, 1992). 이것은 우리 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남성들이 기존 사회구조에서 남성에게 이미 인정된 역할을 고수하려는 경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남편들이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이정연, 1982)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남편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이미숙, 1985; 이성희, 김태현, 1989; 최규련, 1985; Vannoy and Philliber, 1992)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부인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평등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박태은, 1983; 이미숙, 1980; 이형실, 1985; 최규련, 1984) 교육수준은 여성들이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 준다.

부인의 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부인이 취업을 한 경우에 비취업주부보다 더 평등적 태도를 나타내고(이성희, 김태현, 1989) 특히 전문직 경우에는 평등적 태도가 더욱 두드러졌다(박태은, 1983; 이형실, 1985; 최규련, 1984). 전문직 맞벌이부부와 전문직 홀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Sexton and Perlman, 1989)에서도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더 여성적 성역할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기혼여성들이 취업함으로써 전통적인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 더 평등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또는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근대적 의식에 바탕을 두거나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결정임이 현저했던 10여년

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주부들이 취업한 오늘날에도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 성역할태도가 여전히 현저한 차이를 보일지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연령과 성역할태도간 관계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보였으나(박태은, 1983; 이성희, 김태현, 1989; 최규련, 1984; Tomeh, 1978) 이미숙(198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미숙은 이 결과가 응답자의 다수가 25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 연령층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다만 최규련(1984)의 연구에서 남성들의 성역할태도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보이는 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았고 학력이 높다는 것과 관련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1960년 대에는 남편이 도구적 역할(가족부양자)을 하는 전통적 결혼에서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1970년대의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성역할을 강조했다(Parelius, 1975, Vannoy and Philliber(1992)에서 재인용), 1980년대에도 대부분의 남편과 부인들이 여전히 전통적으로 행동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Hiller and Philliber, 1986, Vannoy and Philliber(1992)에서 재인용).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먼저, 부부가 양성적 태도를 보이는 평등적 가치관을 가질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나타나는데 전문직을 제외한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부가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보일 때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Cooper, Chassin, & Zeiss, 1985), 부인이 근대적 성역할태도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된다(강은령, 1989; 박미령, 1987; 임정빈, 이종숙, 1989; 임정빈, 정혜정, 1986; Woods, 1985). 남편의 경우에도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은령, 1989; 서동인,

1985).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평등적 혹은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거나(Rachlin and Hansen, 1985), 오히려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주부들의 남편들이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rivastava and Srivastava, 1985). 또한 성역할태도는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사참여와 자원인지를 경유한 간접효과만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최규련, 1993). 이처럼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부부의 사회적 성과 결혼관계는 부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되며 이것은 다시 부부들이 가족과 일에 관한 의사결정을 통해 재구성된다고 본 관점(Zvonkovic, Greaves, Schmiege and Hall, 1996)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관점은 부부의 상호작용이 부부관계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부관계는 양쪽 배우자를 모두 고려할 때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부부의 성역할태도의 일치여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성역할태도에 대한 부부간 일치도가 높을 때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ooper, Chassin, & Zeiss, 1985), 부부간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남편이 전통적, 그리고 부인이 평등적 태도를 지닐 때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이 근대적이고 부인이 전통적인 경우에는 부부가 상이한 성역할태도를 보이더라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기승주, 1988; 최규련, 1984; Adams, 1986:245). 그러나 신혼기와 학령전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부부의 상이한 성역할태도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정승혜, 1988).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 관계에 대해 연령이나 결혼기간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최규련(1984)의 연구에서는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일치집단이 상이한 집단에 비해 중간 정도의 결혼만족도를 나타내어서 부부간 성역할태도는 성역할태도의 단순한 일치정보다는 이 관계를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해

야 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으며 부부 사이의 성역할태도의 일치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성역할에 대해 과거에 비해 남성과 여성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통적 혹은 평등적 성역할태도와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일치성 및 관련 변인을 이용하여 결혼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역할태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성역할태도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3.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일치성과 부부의 결혼만족도간 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1997년 5월과 6월 사이에 걸쳐 부산광역시의 10개 구를 포함한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을 감안하여 고른 계층과 연령층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할당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다. 금융기관, 일반회사, 전업주부, 학교, 전문직종 및 자영업에 근무하는 기혼자들에게 각각의 봉투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후 직접 혹은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편지를 동봉하였다.

총 600부(300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는데 536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부부 중 한사람만 응답한

64명과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440명(220쌍)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으며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와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oneway ANOVA, LSD, ANOVA, 다중분류분석, paired t-test 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는 결혼관계에서 가사노동, 양육, 의사결정, 권력의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는 부부간 상호작용에서 성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 및 공유를 지지하는 경향을 뜻한다. 결혼관계의 각 영역에서 성에 근거하지 않은 역할공유를 지지하면 평등적 태도, 그리고 성에 따른 역할구분을 지지하면 전통적 태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5. 측정도구

1) 성역할태도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척도를 작성하였으며 척도는 가사노동, 자녀양육, 직업, 여가선용, 의사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형태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태도가 더 전통적임을 의미한다. 척도는 “부인이 취업을 했더라도 부인은 남편보다 집안살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혹은 “집안의 중요한 결정이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는 부인은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문항을 제외한 전체문항에서 0.5이상의 요인점수를 나타내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치

도에 의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는데 남편과 부인에게서 각각 $\alpha=.74$ 와 $.75$ 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표 1).

〈표 1〉 각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평균, 및 범위

성별	성역할태도			결혼만족도		
	신뢰도	평균	범위	신뢰도	평균	범위
남편	$\alpha=.74$	29.81	14-46	$\alpha=.95$	15.21	4-21
부인	$\alpha=.75$	25.64	11-44	$\alpha=.93$	13.92	3-21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KMS(Kansas Marital Satisfaction)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3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만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어 있다(김득성, 1989; 정현숙, 1997; Mitchell, Newell, and Schumm, 1983; Grover, Paff-Bergen, and Russell, 1984; Sabatelli, 1988; Schumm, Scanlon, Crow, Green, and Buckler, 1983; Schumm, Anderson, Benigas, McCutchen, Griffin, Morris, and Race, 1985).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α)가 남편과 부인에게서 각각 $\alpha=.95$, $.93$ 으로 나타났다(표 1).

IV. 결과 및 해석

〈표 2〉에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평균나이는 남편과 부인이 42.00세(S.D.=8.12)와 38.86세(S.D.=7.75)이며 20대에서 60대 범위에 분포되어 있었다. 평균 결혼기간은 160.10개월(S.D.=102.79)이며 최소 1달에서 최대 39년의 결혼경력을 나타내었다.

자녀수는 무자녀에서 5명(평균=1.86명) 사이였으며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가계소득 수준은 남편의 경우는 121-170만원, 그리고 부인은 수입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1.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부부들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성역할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과 LSD 다중범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나이는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젊을수록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부인들의 경우에 더욱 현저하였는데 각 연령별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성역할태도를 나타내었다. 가장 젊은 집단(35세 이하)은 다른 연령층의 모든 집단들보다 평등적 성태도를 보였고 36-45세 집단이 다음으로 평등적이면서 46-55세의 중년층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46-55세 집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전통적인 성태도를 나타내었다. 남편들은 35세 이하의 젊은 집단이 가장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보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나타내었지만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했을 때,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부인보다 더 전통적이었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서동인, 1985; 이성희, 김태현, 1989; 이형실, 옥선화, 1985; 최규련, 1984)와 일치하는 것이다(표 4).

또한 남편들의 성역할태도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력에 관계없이 부인들보다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들이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보인다는 이정연의 연구(1982)를 지지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등적이라는 연구결과(이미숙, 1985; 최규련, 1985)와는 다른 것이다. 반면에 부인들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교 이하의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현저하게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부인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보였다.

직업은 전반적으로 종류에 따라 성역할태도의 차이와 관련되지 않았지만 단순노무와 판매서비스적에 종사하는 부인들이 다른 직종이나 전업주부에 비해 다소 높은 전통적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사무/행정/관리직에 비하여 전통적 성태도를 보여주었다. 전업주부들은 그 다음으로 전통적 성태도를 나타내었다. 그

〈표 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남			여		
		N(%)	M	S.D.	N(%)	M	S.D.
연령	35세 이하	48(21.8)	42.01	8.12	84(38.5)	38.86	7.75
	36-45세	106(48.2)			90(41.3)		
	46-55세	51(23.2)			40(18.4)		
	56세 이상	15(6.8)			6(1.8)		
결혼기간	3년 이하	20(9.1)	160.10 개월	102.79	남편과 같음		
	3-8년	50(22.7)					
	8년 1개월-14년	58(26.4)					
	14년 1개월-20년	43(19.5)					
	20년 1개월-25년	24(10.9)					
25년 1개월이상	25(11.4)						
학력	초등학교 졸	4(1.8)			7(3.2)		
	중학교 졸	8(3.7)			19(8.6)		
	고등학교 졸	59(26.9)			85(38.6)		
	대학교 졸*	118(53.9)			91(41.4)		
	대학원 졸**	30(13.7)			17(7.8)		
소득	없음	0			97(44.1)		
	70만원 이하	14(6.4)			35(15.9)		
	71-120만원	33(15.1)			33(15.0)		
	121-170만원	53(24.2)			17(7.7)		
	171-220만원	50(22.8)			9(4.1)		
	221-270만원	32(14.6)			6(2.7)		
271만원 이상	38(16.9)			16(7.3)			
직업	생산, 운수, 장비운전자 및 단순노무자	18(8.4)			8(3.6)		
	농림, 수산직	5(2.3)			3(1.4)		
	서비스, 판매직	46(21.4)			39(17.7)		
	사무직	46(21.4)			14(6.4)		
	행정, 관리직	24(11.2)			4(1.8)		
	전문기술, 전문직	73(34.0)			39(17.7)		
	전업주부/전업남편	3(1.4)			108(49.1)		
자녀	0	15(6.8)	1.86	.815	남편과 같음		
	1	41(18.2)					
	2	131(59.5)					
	3	30(13.6)					
	4	3(1.4)					
	5	1(.5)					
종교	없음	63(31.2)			34(16.2)		
	신교	42(20.8)			53(25.2)		
	카톨릭	20(9.9)			28(13.3)		
	불교	72(35.6)			90(42.9)		
	기타	5(2.5)			5(2.4)		

* 전문대졸, 대학 재학을 포함하였음.

** 대학원 재학(4명)을 포함하였음.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태도

구 분		성역할태도					
		부인			남편		
		평균	F	LSD	평균	F	LSD
나이	35세 이하	23.67	6.74****	a	28.15	2.08	
	36-45세	26.06		b	29.85		
	46-55세	28.44		c	30.79		
	56세 이상	28.33		abc	31.60		
직업	단순노무, 판매서비스직	26.72	1.72		29.74	.19	
	사무행정, 관리직	23.33			29.84		
	전문기술, 전문직	24.79			30.01		
	전업주부/전업남편	25.92			32.33		
학력	중학교 이하	29.57	4.47****	a	31.00	.87	
	고등학교 졸	25.73		b	30.65		
	대학교 졸	24.81		b	29.23		
	대학원 졸	23.88		b	30.00		
소득	70만원 이하	25.52	1.24		30.62	1.69	
	71-120만원	23.84			28.39		
	121-170만원	27.13			31.14		
	171-220만원	25.33			29.41		
	221-270만원	29.80			28.10		
	271만원이상	25.94			30.92		
결혼기간	3년 미만	23.10	5.08****	a	26.35	3.38**	a
	3-8년	24.37		a	29.38		a
	8-14년	25.20		a	30.73		b
	15-20년	25.73		a	28.44		a
	21-25년	26.00		a	30.96		b
	26년 이상	30.54		b	32.46		bc
자녀수	0명	23.73	13.08*****	a	25.60	5.53****	a
	1-2명	24.92		a	29.81		b
	3명 이상	30.45		b	31.73		b
맞벌이 여부	맞벌이부인	25.42	.23		29.00	2.90	
	전업주부	25.81			30.42		

* p< .05 ** p< .01 *** p< .005 **** p< .0005 ***** p< .00005

러나 남편들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전문직 취업주부가 비전문직 취업주부나 전업주부에 비하여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나타

낸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며 특히 부인의 경우에 직종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과거만큼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특기할 만하다.

〈표 4〉 성별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차이

성역할태도		paired t=8.48***
남편	29.91	
부인	25.70	

*** p< .0005

소득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각자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성역할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혼기간은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관련이 있었는데 부인들은 결혼기간이 길수록 전통적 태도를 보였고 결혼기간이 26년 이상의 부인들은 결혼기간이 더 짧은 부인들에 비해서 더욱 전통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남편들도 결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와 청소년기 자녀를 두는 15-20년인 경우에 초등학교 자녀를 두는 8-14년의 결혼경력과 21년 이상의 결혼경력의 남편들보다 더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보였다.

자녀수와 성역할태도와의 관계를 보면 부부 모두 자녀가 많을수록 전통적 태도를 보이며 특히 여성들은 무자녀와 2명 이하의 자녀를 둘 때 현저하게 평등적 성태도를, 그리고 3명 이상일 때 전통적 태도를 기록하였다. 자녀수는 선행연구에서 성역할태도와 관련된 변수로 주목받지 않은 변수이며 자녀수에 따라 성역할태도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부인들의 취업여부와 성역할태도간 관계를 보면, 부인의 취업은 성역할태도의 차이와 관련이 없었으며 남편들의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써 단순히 부인이 취업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오늘날 유의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2. 성역할태도 유형 및 성역할태도의 일치에 따른 결혼만족도

성역할태도를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남편과 부인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ANOVA를 이용하여 결

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가 〈표 5〉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남편이 평등적이고 부인이 전통적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부가 모두 평등적일 때와 부부가 모두 전통적일 때의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가장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인 집단은 남편이 전통적이고 부인이 평등적인 경우였다. 〈집단 3〉에 속한 평등적 부인들이 결혼에서 기대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이나 전통적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고 남편들의 경우에도 역시 전통적 결혼관계에 대한 기대에 반하여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평등함으로써 이러한 결혼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부인들의 성역할태도가 남편보다 더 평등적이라는 연구결과와 함께 성역할태도가 부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Vannoy와 Philliber(1992)의 연구에서 부인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전통적이라고 느낄 때 결혼만족도가 낮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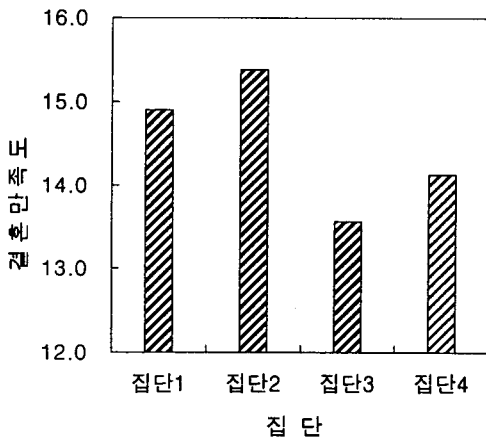
하위집단간 차이는 LSD를 이용한 다중분석범위로 살펴보았는데 〈집단 1〉과 〈집단 2〉의 부부들은 결혼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집단 3〉은 〈집단 1〉의 부부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결혼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집단 2〉의 부부들은 〈집단 3〉이나 〈집단 4〉의 부부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또한 〈집단 3〉과 〈집단 4〉의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는 서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것은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지 혹은 평등적인지 등의 일률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부부 상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Thompson과 Walker(1989)가 가족생활의 각 영역에서 성(gender)을 고찰하면서 성을 개인적 특성이나 역할로 이해하기보다는 관계적 혹은 상호작용적 특성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남편이 평등적이고 부인이 전통적인 〈집단 2〉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부가 모두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권익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장되었다고

〈표 5〉 성역할태도에 따른 집단별 부부의 결혼만족도

성역할태도		N	평균	F	LSD
집단 1	남편-평등적, 부인-평등적	63	14.90	F=3.39*	ac
집단 2	남편-평등적, 부인-전통적	51	15.38		a
집단 3	남편-전통적, 부인-평등적	32	13.56		b
집단 4	남편-전통적, 부인-전통적	55	14.13		bc

* p<.05



〈그림 1〉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인식되는 오늘날의 결혼관계도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성역할태도와 각 집단의 결혼만족도간 관계는 어느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더욱 민감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는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남편들의 결혼만족도는 각 집단별 성역할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다. 〈집단 1〉과 〈집단 2〉의 평등적 태도의 남편들이 다른 집단들의 전통적 태도의 남편들보다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들(1과 2)의 경우와는 유사하지만 〈집단 3〉을 비교하면 남편들이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성역할태도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집단	성역할태도	남편			부인		
		평균	F	LSD	평균	F	LSD
1	남편-평등적, 부인-평등적	15.98	3.66*	a	13.84	2.22	ab
2	남편-평등적, 부인-전통적	15.86		a	14.90		b
3	남편-전통적, 부인-평등적	14.24		b	13.12		a
4	남편-전통적, 부인-전통적	14.52		b	13.75		ab

* p< .05

부인들의 경우에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p=.09$) LSD를 이용한 다중범위분석에서는 <집단 2>와 <집단 3>의 결혼만족도가 서로 유의하게 달랐다. 이 결과는 부인들의 결혼만족도가 전체적으로는 부부들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같은 경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집단 2>의 부인들이 다른 집단들, 특히 <집단 3>의 부인들보다 더 만족스런 결혼관계에 있음을 나타내지만 이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의 부인들은 전체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남편들의 집단간 차이는 부인들보다 더 현저하며 평등적 남편을 둔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부인들만 결혼에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평등적 성역할태도의 남편을 둔 평등한 부인들도 남편들에 비해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인 것은 부부관계가 성역할태도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성역할 수행이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이념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문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성역할태도는 나이, 학력, 결혼기간, 그리고 자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에 의한 영향력을 배제한 결혼만족도와 성역할태도간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이 요인들을 통제한 후 분산분석을 이용한 다중분류분석(MCA)을 실시하였다(표 7). 연령, 학력, 결혼기간, 자녀수의 영향력을 배제한 후에도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는 부인들의 경우에 서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p<.05$), 성역할태도와 통제변수들은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각각 15%와 19%를 설명하는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경우에는 학력과 함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평등적, 그리고 부인이 전통적이거나 부부가 모두 평등적인 부부들이 만족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다른 유형의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보다 높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Rachlin and Hansen, 1985; Srivastava and Srivastava, 1985)를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부부가 상이한 성역할태도를 가지더라도 남편이 근대적이고 부인이 전통적인 경우에는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일치성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배우자 중 어느 쪽이 평등적 혹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지는지와 어떠한 태도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 결혼만족도에 대한 성역할태도와 통제변인의 영향

구분	부인		남편	
	F	β	F	β
통제변수	5.91***		8.99***	
학력	2.50		13.81***	
나이	.66		3.80	
결혼기간	.29		.74	
자녀수	2.46		.02	
주효과				
집단	3.61*		2.93*	
		.22		.19
R ²		.15	R ²	.19
multiple R		.39	multiple R	.43

* $p<.05$ *** $p<.0005$

<표 5>에는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일치 유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일치할 때(집단1 과 4) 서로 다른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부들에 비해서 중간 정도의 결혼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하여 부부를 성역할태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전통적, 중간, 평등적인 세 집단으로 나눈 뒤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를 측정하였다(표 8).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인이 남편보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거나 성역할태도의 차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일치할 때에는 중간으로, 그리고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남편보다 평등적일 때 불만족스럽게 나타났다. 특히 부인이 남편보다 훨씬 평등적일 때(집단 A) 결혼에 더욱 불만족하였다. 집단 C의 경우에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만 알 수 있으므로 어느 유형으로 일치하는지는 <표 5>의 분석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 결과

〈표 8〉 부부의 성역할태도의 일치성과 결혼만족도

집단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	평균				F	
		남편	LSD	부인	LSD	남편	부인
집단 A	부인 성역할태도-남편 성역할태도=-2 ^x	12.86	a	12.00	a	2.16	3.22*
집단 B	부인 성역할태도-남편 성역할태도=-1 ^x	15.25	b	12.79	ab		
집단 C	부인 성역할태도-남편 성역할태도=0	15.30	b	13.98	bc		
집단 D	부인 성역할태도-남편 성역할태도=1 ^y	15.73	b	14.89	c		
집단 E	부인 성역할태도-남편 성역할태도=2 ^y	15.50	b	14.22	abc		

* $p < .01$

x: 남편이 부인보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님.

y: 남편이 부인보다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님.

는 〈표 5〉에서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최규련(1984)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이지만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일치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Cooper et al. (1985)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서로 일치할 때 평등한 태도의 부인과 전통적 남편의 결혼관계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전통적 태도의 부인과 평등적 태도를 가진 남편의 결혼관계보다는 불안측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부부관계가 아직도 부인이 가사노동, 자녀양육, 의사결정 등의 영역에서 전통적 역할을 지지할 때 결혼이 만족스러우며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남성들의 성역할태도의 변화는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기혼부부 220쌍을 대상으로 부부들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주는 제변인들과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역할태도는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부부 모두 젊을수록 평등적 성태도를 보여 주었고 부인들은 남성들에 비해 연령간 차이가 더욱 현저하였다. 또한 결혼기간도 성역할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는데 결혼기간이 길수록 전통적 성태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여성들은 25년 이상의 결혼에서, 그리고 남성은 15년 이상의 결혼에서 전통적 성역할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자녀수와 성역할태도의 관계를 보면, 남편과 부인은 자녀수에 따라 성역할태도의 평등성 정도가 달랐는데 부인들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그리고 남편들은 2명 이상일 때 현저하게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부인의 취업여부는 성역할태도의 차이와 관련없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기혼부부들의 전통성 정도는 부인의 취업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으나 기혼여성의 절반정도가 취업한 오늘날에는 부인들의 취업여부는 부부들의 전통성 정도를 나타내는 변별력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예상과는 달리 직업의 종류는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다만 부인의 경우에 단순노무/서비스직이 사무행정/관리직에 비해 더욱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보였다. 소득 수준도 성역할태도의 차이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고소득인 경우에 부인들은 다소 평등적 경향을, 그리고 남편들은 다소 전통적 경향을 보인 점이 특기할 만하지만 더 낮은 소득수준의 부인이나 남편들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력은 부인들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중학교 이하의 학력에서는 현저하게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보였다. 남편들의 경우는 학력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학력에 관계없이 부인들

보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나타내었다. 성역할태도는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더욱 평등적이었으며 맞벌이 여부도 부인의 성역할 취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태도는 세대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과거에 비해 다소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혼 부인들의 취업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부인의 취업 여부 자체는 성역할태도를 결정짓는 주요변인이 되지 않으며 직종도 큰 영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력에 의한 성역할태도의 차이는 두드러짐으로써 여성들의 경우에는 교육정도가 의식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가족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복지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전통적 그리고 부인이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 때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부부가 모두 전통적일 때, 부부가 모두 평등적일 때의 순으로 높았으며 남편이 평등적, 그리고 부인이 전통적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태도에 대한 나이, 학력, 결혼기간, 자녀수에 의한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집단간 결혼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역할태도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며 한 개인의 성역할태도보다는 어떠한 성역할 성향을 지닌 개인들이 서로 부부가 되는가가 결혼만족도에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성역할태도와 관련된 제변인과 성역할태도와 결혼관계간 관계를 파악하였고 남녀 모두를 포함한 부부단위의 자료로써 성역할태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평등한 결혼은 만족스런 결혼으로 나타났지만 평등성 여부 외에도 개인보다는 부부들의 성역할태도가 서로 어떻게 조화되는지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대다수의 남편들이 부인들에 비해서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결혼관계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더욱 변화하여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가족과 관련된 상담 및 교육 등의 영역에서 남성들의 참여가 거의 배제된 현실에서 어떻게 남성들을 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지에

관한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연구영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은령 (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취업부부/비취업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기승주 (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전남 농촌부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 김득성 (1989). 결혼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85-94.
- 4) 김명자 (1990). 가족관계, 아동학, 가족학, *대한가정학회*, 서울:교문사.
- 5) 박미령 (1987). 한국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6) 박태운 (1983).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1(2), 139-150.
- 7) 서동인 (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8) 유영주 (1991).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1), 45-63.
- 9) 이미숙 (1985). 자녀의 성, 연령, 수와 주부의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51-170.
- 10) 이성희, 김태현 (1989). 성역할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 역할구조분석-서울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09-125.
- 11) 이정연 (1983).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이형실 (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3) 이형실, 옥선화 (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31-41.
- 14) 임정빈, 이종숙 (1989). 확대기가정 부부의 가정

-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17-132.
- 15) 임정빈, 정혜정 (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4.
 - 16) 정승혜 (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18)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22(1), 91-102.
 - 19) _____ (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20) 통계청 (1996). "경제활동인구연보" 1985-1996.
 - 21) 한남제 (1988). 한국도시부부의 적응에 관한 일 연구.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소, *여성연구*, 16, 19-35.
 - 22) Adams, B. N. (1986). *The Family-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San Diego: HBJ.
 - 23) Allen, S. C. (1988). The relation of income and sex-role orientation to marital satisfaction in dual-worker marriages where the wife is self-employed and earns the greater income. *DAI-A* 49/05, p. 1059.
 - 24) Brogan, D. and N.G. Kutner (1976).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31-41.
 - 25) Citron-Bilovsky, C. C. (1992). A comparison of marital and role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in dual-career marriages. *DAI-A*, 53/09, p. 3106.
 - 26) Cooper, K., L. A. Chassin, & A Zeiss. (1985). The relation of sex-role self-concept and sex-role attitudes to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personal adjustment of dual-work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Sex Roles*, 12(1-2), 227-241.
 - 27) Diniz, G. R. S. (1993). The interaction between work, gender-roles and marriage-family dilemmas in dual career and dual worker couples. *DAI-B* 54/03, p. 1661.
 - 28) Durkac, J. A.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care tasks among dual-career couples. *DAI-A* 50/12, p. 3894.
 - 29) Gordon, J. (1990). Transition from traditional to dual-career family life: Correlates of marital satisfaction. *DAI-B* 51/04, p. 2046.
 - 30) Grover, K., Paff-Bergen, L. A., Russell, C. S., and Schumm, W. R. (1984). The Kansas Satisfaction Scale: A further brief report. *Psychological Reports*, 54, 629-630.
 - 31) Hiller, D. V., & Philliber, W. W. (1986). The division of labour in contemporary marriage: Expectations, perceptions, and performance. *Social Problems*, 33, 191-201.
 - 32) Lewis, R. A. and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Burr, R. Hill, F. I. Nye,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pp.268-294. New York: The Free Press.
 - 33) Mirowsky, J. (1985).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An equity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1, 557-592.
 - 34) Mitchell, S. E., Newell, G. K., and Schumm, W. R. (1983).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3, 545-546.
 - 35) Parelius, A. P. (1975). Change and stability in college women's orientations toward education, family, and work. *Social Problems*, 22, 420-432.
 - 36) Parker, M. M. (1995). Dual-career and traditional marriage and those moderating variable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DAI-B*, 56/06, p.3460.
 - 37) Parsons, T. and Bales, R.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l., Free Press.
 - 38) Rachlin, V. C. and Hansen, J. C. (1985). The

- impact of equity or equalitarianism on dual-career couples. *Family Therapy*, 12(2), 151-164.
- 39) Robinson, M. M. (1995). An investigation of orientation toward marriage as an explanation for gender differences in one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DAI-B* 56/06, p. 2003.
- 40) Schumm, W. R., Anderson, S., Benigas, J., McCutchen, M., Griffin, C., Morris, and Race, G. (1985).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6, 719-722.
- 41) Schumm, W. R., Scanlon, E., Crow, C., Green, D., and Buckler, D. (1983). Characteristics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in a sample of 79 married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53, 583-583.
- 42) Sexton, C. S., & Perlman, D. (1989). Couples' career orientation, gender role orientation, and perceived equity as determinants of marital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33-941.
- 43) Srivastava, K. and A. K. Srivastava (1985). "Job stress, marital adjustment, social relation & mental health of dual career and traditional couples: A comparative study." *Perspectives in Psychological Researches*, 8(1), 28-33.
- 44) Thompson, L. , & Walker, A. J. (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2.
- 45) Tomeh, A. K. (1978). Sex-role orientation: An analysis of structural and attitudinal predi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2), 341-353.
- 46) Vannoy, D., & Philliber, W. W. (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387-398.
- 47) Woods, N. F. (1985). Employment, family roles, and mental ill health in young married women. *Nursing Research*, 34(1), 4-10.
- 48) Zvonkovic, A. M., K. M. Greaves, C. J. Schmiege, & L. D. Hall (1996). The marital construction of gender through work and family decisions: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1), 91-100.